



익명, <예수님의 승천>, 10-11세기, 채색삽화, 메디치 도서관, 이탈리아

성화 해설

이 삽화는 중세에 제작된 성서 중 예수님의 승천 대목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 마리아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 드높이 올라가고 있다. 생명의 말씀인 성서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든 예수님께서 젊게 표현된 것은 그분 안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입당송 시편 67(66),2-3 참조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98(97),1,2-3ㄴ,3ㄷ-4,5-6(◎2ㄴ)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마태 28,19ㄱ,20ㄴ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그러한 보편적 구원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세상 안으로 파견하시며 당신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 무상으로 나누어주게 된 구원의 기쁨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선교사명이야말로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자 명령’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는 하지만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용어는 본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의미에서의 평화조약 체결 또는 승전 선포나 새로운 임금의 등극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기쁨’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습니다. 교회는 그때까지 사회적,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바로 그 복음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도 사건을 지칭하기 위해 갖다 쓰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사건을, 구원의 기쁨을 살게 하는 더할 나위 없는 결정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구원관은 바로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전교주일로 지내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조차 아직도 이기적인 장벽을 헐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선교 사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상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나아가고 있는가와 그분을 전 실존의 주님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실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살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구체적인 확신 없이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을뿐더러 고통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보다 더 큰 희망과 격려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살며 전해야 할 신앙인들이 참으로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혹시라도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따스하게 살자!”



김은순 마리아 | 평화방송 PD

10여 년 전, 평화방송 FM(105.3MHz)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을 진행하셨던 DJ 신부님께서 방송 중에 문제를 내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30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여섯 글자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밤 열 시부터 두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 된 그날,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전화를 주었지만 누구도 정답을 맞히진 못했습니다. DJ 신부님의 다소 주관적인^^ 견해에서 제시된 문제였으니 정답자가 쉬이 나올 수 없었겠지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정답은 바로, ‘따스하게 살자!’ 였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의미는, 당신을 내어놓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의 진리 안에서 행복하면 그분도 행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분이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따스하게 살자’ 입니다.”

이 단순 명쾌한 신부님 해설 끝에 많은 청소년들의 박수 소리가 스튜디오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제작자로 그 공간에 함께했던 저 역시 진정한 전교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가슴에 새긴 기억이 있습니다.

모인 군중들 눈높이에 맞춰 수많은 비유를 들어 당신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신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 분들, 또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고 있는 선교사와 교회언론인, 문화인 모두는 주님께 부름 받은 일꾼들이며, 한마음으로 ‘따스하게 살자’ 고 외치는 분들입니다.

지난 1988년 <기쁜 소식 밝은 세상>을 모토로 설립된 평화방송·평화신문 역시, 2천 년대 복음화에 기여하는 큰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좀 더 밝은 빛,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찾아 그 빛이 세상을 환히 비추도록 점등시키는 역할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시청취율을 올리고, 구독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복음화의 바른 잣대가 될 수 있을까? 매체에 감탄하며 물려드는 군중보다 마음속 감동으로 움직이는 소수를 외면하는 일은 없는가? 신앙을 전하기보다 나누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 솔직히 저 자신부터 당당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갈등하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다 보면 주님께서 딱! 여섯 글자의 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너와 함께 있다” ...

전교주일인 오늘, 유독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만나실 텐데요, 그분들께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면 Wow!

그 손길에 따스한 사랑까지 없어주신다면 Allah!! 입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40

장기 이식은 윤리적인 조건을 채울 경우 칭찬받을 만하다

“장기 기증[생체 기증]은 자신의 생명이나 인격적 정체성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그리고 정당하고 균형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의료인 헌장 86항).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다른 희망이 전혀 없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심지어 생명 자체의 기회까지 주고자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86항).

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안구 기증을 계기로 장기 기증의 열기가 높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의 복음을 매일의 삶 속에 경축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권고하시며 훌륭한 예로 장기 기증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베풀을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야 하므로 장기 매매나 강요의 위험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염려되는 생체 기증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생체 기증 대신 사후 안구기증이나 뇌사 시 장기 기증을 권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장기 기증을 통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 다닐 것입니다”(묵시 21, 24)



올 전교주일에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되새기며, 사도 바오로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교회의 선교 목적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의 한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인류를 위하여,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1. 구원으로 부름 받은 모든 민족들

온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만 궁극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분열과 차별, 갈등, 반목은 사라지고 일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도록 당신 제자들을 부르시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견하신 것입니다.

2. 순례하는 교회

희망의 씨앗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활동의 척도는 현세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성취되는 초월적인 구원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궁극에 가서야 완성되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정의와 평화, 진정한 자유, 모든 인간 존엄성의 힘이 됩니다.

3. 만민 선교

교회의 사명은 성자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

으로 모든 민족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세상의 목적이며 완성인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기에 이 사명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온 교회는 만민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4. 순교에까지 이르는 복음화 소명

전교주일에 특별히 복음화 활동을 위해 자기 삶을 봉헌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히 사회적 차별부터 감금, 고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억압을 받는 박해 상황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하는 지역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운명을 겪습니다.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오랜 전통의 교회들과 신생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만민 선교는 그들의 사목 계획에서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적인 임무로서 신생 교회들에게 교육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교황청 전교기구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 교황청 전교기구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공동 선교를 계획함으로써 교회 간의 친교가 훌륭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결론

복음화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활동이며,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지역 교회의 복음화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박해 상황에서도 선교에 투신하는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의 빛이 되시고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하신,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의 선교 활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10월18일)은 '전교주일' 로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주일 특별 헌금은 '교황청 전교회' 에 보내져, 전 세계 선교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쓰입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

- 10월19일 김윤상 베네딕토(79세) 2001년
- 10월21일 한기근 바오로 신부(71세) 1939년
- 10월23일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70세) 1943년

교구청 알림

교구청

10월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기원미사

- 때, 곳: 10월20일(화) 오전 11시, 명동대성당 지하소성당 / 집전 및 강론: 최창화 몬시뇰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경찰서 유치장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건강 받은 60세 이하 교우) / 주최: 경찰사목위원회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향심기도(후속강의)

-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향심기도 회원들
- 때, 곳: 11월4일부터 매주(수) 14시~16시(5주), 명동대성당 교육관 205호(www.hyangsim.com)
- 문의: 010-8674-1105 사목국 향심기도회(회비: 1만원)

노인사목부 (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지도사모집

- 분야: 시니어 NIE· 영어지도사(각 50명), 시니어 웰빙 지도사(100명) / www.isenior.or.kr
- 대상: 전직 교사, 영어 등 교육, 건강· 의료관련 경험자(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시니어)
- 급여: 월 60만원(주 5일 근무 / 월 80~100시간)
- 소양· 직무교육(총 3개월) 이수 후 정식근무
- 10월23일(금) 17시까지 전화· 방문· 이메일 접수 / 문의: 765-8457, 8(isenior2@hanmail.net)

10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체험사례

10월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19일(월)	불광동(지구자체)	
20일(화)	청량리	명일동
21일(수)	중곡동	역삼동
22일(목)	대방동	등촌1동
23일(금)	목동	

원목봉사자교육 제Ⅲ과정

- 내용: 환자돌봄을 위한 심화교육(회비: 9만원)
- 때, 곳: 11월11일~12월2일 매주(수) 10시~16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11월3일(화)까지 접수
- 문의: 727-2073, 2050 일반병원사목부

서울가톨릭간병인회 '남여 간병인 양성교육 및 모집'

- 때: 10월27일(화)~29일(목) 9시30분~17시
- 곳: 교구청별관 5층(522호) / 문의: 928-7185
- 회비: 7만원 / 선착순 20명(환불 안됨)
- 계좌: 우리은행 1005-701-131505 (재) 천주교

평화화랑 전시안내

- 전시 및 대관 문의: 727-2336~7

애덕의 집 작품전	실비노 수사 작품전(서양화)
10월21일(수)~27일(화)	10월20일(화)~27일(화)
제1전시실	제2전시실

※ 후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보 게재 신청은 홈페이지로만 접수합니다. 후보 게재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일정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 후에 후보 게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작일: 10월19일(월) 오전 9시부터 회원가입 가능
- 2010년 1월 후보 게재신청 시작일: 11월3일(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 미리 회원가입이 승인되어 있어야 게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은 후보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교회 단체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내용도 게재가 불가능합니다.
- ※후보 게재 규정 및 게재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국 홈페이지 - 후보게재신청 - 게재규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1월 이전 후보 게재료를 미납한 단체는 2010년 후보 게재 접수가 불가능하니, 납부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착순 접수하며, 모든 단체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정 단체에 특혜를 드리지 않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10. 24.25.(성소자 피정)	성북동	011-9799-8790	서울 국제 선교회	10. 24. 14시	사당5동성당	749-4596
마리아의 종 수녀회	10. 25. 14시-16시	돈암동 분원	010-3065-8221	성심수녀회	10. 25. 13시30분	수녀원 청원소	010-9562-3339
살레시오 수도회	10. 24-25. (1박2일)	대림동 공동체(서울)	011-894-1332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10. 25. 14시	다락 공부방(서울)	011-9731-0283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10. 25. 14시-17시	성북구 길음동 분원	010-8828-2754	착한목자활동·관상 수녀회	10. 25. 14시-17시	자양동 수녀원	010-2871-8805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10. 25. 14시	가양동 분원	010-3130-3370

알림

※ 2010년 주보 개재 신약안내 ※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로 만 접수합니다.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신성기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5면 참조)

모임

젊은 여성을 위한 1일 피정(문의: 019-360-5649)
· 때, 곳: 10월25일(일) 10시-17시, 하비에르 사도회(주최) / 주제: 상징(대상: 대학교 재학 이상)

성소식별피정(문의: 010-5730-6322)
· 때, 곳: 10월30일(금) 19시-11월1일(토) 16시, 성령 선교수녀회(주최) / sspkorea.org(회비: 3만원)

성소자 침묵 피정
· 때, 곳: 10월31일(토) 17시-11월1일(일),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 010-8519-3431, 053)313-3431

6지구 성령기도회 대피정
· 때, 곳: 10월27일(화) 10시부터, 도봉산성당(주최)
· 강사: 김응렬 신부 / 문의: 3491-2326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 때, 곳: 10월26일-12월8일 매주(월) 10시-12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756-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예수회 서울 피정(문의: 3276-7777)
· 주제: 일상에서 예수님과 만남 / 강사: 조학균 신부
· 때, 곳: 10월21일(수)-11월18일(수) 13시30분-17시, 서강대 아나시오관 성당(11월 피정부터는 예수회 센터 3층 성당)

청년과 웃음으로 하는 치유피정
· 때: 11월14일(토)-19일(목) / 회비: 30만원
· 곳: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주최) 피정의 집(강원도 횡성) / 989-1882, 033)343-0201

미리아니스트 영성을 통한 '하느님 헌신제' 1일 침묵피정
· 주제: 다섯가지 침묵의 생활화(회비없음)/개방피정
· 대상: 성인(선착순 20명) / 미사준비·필기도구 준비
· 때, 곳: 11월1일(일) 9시-17시, 마리아니스트 영성센터(주최) / 2648-7134, 010-3311-7134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 고해성사, 상담, 강의, 치유기도, 안수, 미사(중식제공)
· 때, 곳: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10월21일(수)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 최기식 신부
10월28일(수) 자녀를 위한 중개기도 / 치유기도 찬양팀

쓰든 피정의 집 향심기도 소개 피정·성경통독
소개피정 11월7일(토), 쓰든피정의 집(17시까지 접수) / 744-9835
성경통독 주제: 연극과 춤이 만난 성경이야기 / 대상: 미혼여성 11월13일(금)-15일(일), 쓰든피정의 집 / 011-9193-3005

제주 성 이시들 피정센터(문의: 773-1455)
제주 피정 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10월31일-11월2일, 11월9일-11일, 11월14일-16일, 11월26일-28일
삼위일체회 10월19일(월) 9시30분-12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강사: 김보록 신부) / 처음 오시는 분 책 드림
김곡성당피정 10월28일(수), 11월5일(목)·14일(토)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1416, 7)
열린 기도모임 내용: 말씀, 묵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안수, 미사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월요철야 때, 곳: 매주(월) 22시-3시30분,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성모송 2000번 때, 곳: 매월 둘째·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젊은이 침묵피정
· 대상: 청년 신앙인 / 회비: 1만5천원(선착순마감)
· 때, 곳: 10월26일(일) 9시30분-17시, 마리아의 딸 수도회 / 문의: 2648-7134, 011-686-7134

대치동성당 대피정
· 내용: 영적성장으로의 초대(예수님과 의인격적 만남)
· 강사: 조진균 신부(그리스도 레지오 수도회)
· 때, 곳: 10월26일(월) 12시30분-17시, 대치동성당(전철 3호선 대치역 2번 출구, 도보 10분거리)
· 문의: 010-5710-1884(강의·미사·안수) / 회비없음

찬양 웃음 치유(작은예수회)
· 내용: 찬양과웃음, 치료 레크레이션 / 018-330-3283
· 강사: 메히틸다 수녀, 에프렘 수사, 김혜리(웃음 치료사) / 미사: 박성구·김재영 신부
· 때, 곳: 매주(수) 13시47시, 작은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주최: 예수사랑음악원

교육

2010년도 (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인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모집 2차: 2009년 10월26일(월)-11월26일(목)
· 모집학과 안내(www.csj.ac.kr)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54)851-3021, 2 입시홍보처(팩스: 054)851-3009)

제8회 가톨릭 전례꽃꽂이 전시회
· 제목: 시성 25주년 기념목상전 / 지도: 정의철 신부(주최: 가톨릭 전례 꽃꽂이 연구회)
· 때, 곳: 10월27일 10시30분(시작미사) · 10월28일 16시30분(과건미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성당 / 문의: 011-1736-3673 심상은(회장)

해외 파견 선교사를 위한 교육
· 대상: 해외로 파견되는 선교사, 교포 사목자
· 때: 14차 2010년 1월4일(월)-29일(금), 15차 2010년 2월22일(월)-3월19일(금) / 953-0613 해외 선교사 교육 협의회(www.missionedu.com)

관계개선을 위한 '사티어의의사통혼련' (문의: 747-2442)
· 대상: 원활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모든 사람(남성 환영)
· 주최: 미리암 이주여성 상담소, 천주교 여성 공동체
· 때, 곳: 11월6일부터 매주(금) 19시-22시 · 매주(토) 14시-17시(총 8회), 천정연회관 2층(혜화동)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정신역동적 집단 사고, 감정, 행동의 상호역동과 인간관계 향상
상담과 치료 10월31일-1월2일 매주(토) 14시-17시
전문상담료: 음악치료 개인(불안, 우울, 대인관계 부적응), 부부·가족간의 갈등
청소년·성인전문심리검사(성격, 정서, 인지, 자능,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등)

양업문화 교육원 신앙인 학교 강의(문의: 853-1104, 5)
· 양업문화 교육원장: 진교훈 / 지도: 구요비 신부
· 강사: 홍승수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
·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프라도의 집(성북동 1가 106-43) / 교재: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월17일 지구 생명의 속성과 생명의 정의
10월24일 생명의 기원과 외계 생명
10월31일 진화에 얽힌 우연과 필연의 사연

미사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 주제: 성모님 안에서 마음 상처 치유 / 793-2070
· 내용: 미사, 영성강좌(구원도 신부)
· 때: 매월 셋째주(월) 10시30분-12시50분
·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일기도와 미사
· 내용: 구일기도 및 강의, 미사 전후에 고해성사
· 때, 곳: 10월19일(일) 오후 2시, 수유1동성당
· 구속주회 본원: 매주(토) 오전 11시
· 문의: 598-1312, 010-4189-5755 구속주회 신부

안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 목욕, 주방, 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 582-6004, 6012
· 방문요양 · 방문목욕: 서울시 내 전지역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가능(담당: 김보경)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면접상담 가능)
·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개인문제 등
· 상담시간: 매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 상담: 745-1366

성심 가족 심리상담센터 개인 및 집단상담
· 아동(심리검사, 놀이치료, 학습치료), 청소년(진로탐색)
· 아동·청소년·성인심리검사 및 상담(인간관계, 가족, 신앙, 자녀문제 현재의 심리상태 분석 및 자신이 성격분석 후 전문가에 의한 상담 진행) / 544-1617

서초여성회관 무료여성취업알선(문의: 522-0291, 2)
· 위치: 전철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 직진 5분

구인처 모집 사무직, 서비스직, 환경관리 등(내선 211번)
서류: 사업자 등록증 1부
구직자 모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내선 238번)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 사진 1매

마음중심 에니어그램(내선223번): 강사: 이안숙(에니어그램 전문강사, 심상치료사) / 11월접수
월요일 12월7일-2010년 2월8일 매주(월) 10시-13시(총 10회)
토요일 2010년 1월9일-30일 매주(토) 10시-16시(총 4회)

명동성당 11월 예비신자 교리학교
· 개강: 11월1일(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별관
수요일 오후 7시30분 교육관 305호 774-1784
주요일 오후 4시

명동성당 성지미사: (월-토) 오전 10시, 지하성당

직원모집

가양동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 받은지 5년이상 된 교우 / 2659-3272
· 서류: 이력서(자필), 주민신부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방화관리사) / 10월31일까지 접수

마천동성당 여사무원 모집(문의: 406-1033)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이상 된 교우, PC(한글·엑셀) 사용 가능한 분 / 10월25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민신부 추천서(접수된 서류는 반환 안됨, 면접 개별통보)

가명유아시설과 전시관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이상, 방화관리자 및 시설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 11월1일(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자격증 사본, 주민신부 추천서(접수된 서류는 반환 안됨)
· 문의: 362-1891 중립동 약현성당 사무실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보라매 I Will Center 직원모집
· 분야: 상담·교육 담당 1명(10월23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류 및 접수 문의: 834-6411 (www.iwillcenter.or.kr, www.boramyc.or.kr)
· 자격: 대학원의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청소년상담사·임상심리사(국가자격)·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 교육 이수자(보라매 I Will Center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공간임)

서울대학교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일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09년 목주기도 성월 추천 도서

목주기도

로버트 데그란디스 유진 피터 코세니나 지음 황애경 옮김
140X205 | 반양장 | 192면 | 7,000원



생생하게 그려진 예수님의 탄생과 수난,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드리는 목주기도! 이 책은 묵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목주기도서입니다. 각 신비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눈앞에서 보듯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기도 후에 성인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주기도의 길잡이 장미 꽃다발

정진석 추기경 지음
128X188 | 반양장 | 100면 | 3,000원



이 책은 목주기도의 뜻과 기원, 형식에 대해 설명한 후, 각 신비에 대한 현의와 성경 말씀을 열 개씩 선정하여 목주기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에 맞는 성화와 해설은 목주기도를 좀 더 생생하게 바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목주기도를 바침으로써 구원의 전주자이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간 안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가진 것을 나누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도요안 지음 | 140X205 | 반양장 | 172면 | 8,000원



이 책은 가난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제도적인 상황과 그들에 대한 우리와 교회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세밀하게 짚으면서 과연 그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우리와 교회는 그들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다각도로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매일의 전례에 따른 묵상과 기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기

한글판 · 영문판 각 권 900원
정기구독료(1년) : 각 권 17,000원
한글판 · 영문판 함께 구독시 30,000원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입니다. 매일의 전례에 따른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한 '30일 묵상', 사제들의 지아 성찰과 단상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 놓은 '아침 뜨락', 그 달의 주제에 맞는 가르침이나 인물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영성 에세이' 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어 하루하루 하느님을 향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70-8233-8221 * 인터넷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테너 정준영 스테파노 교수의 '이야기가 있는 성가독창회'

·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031)751-0603(stylebyms@naver.com)



테너 정준영 스테파노 교수의 '이야기가 있는 성가독창회'가 10월26일(일) 오후 8시, 방배동성당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기존 음악회의 지루한 형식에서 벗어나 가톨릭 교우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베베룸, 아베마리아, 생명의 양식 등의 노래가 김문선의 반주와 정준영 교수의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연주됩니다.

공연 2일 전까지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제2회 한국 뿌에리 간도레스 합창제

· 문의: 2270-2619, 2235(전석 초대)

제2회 한국 뿌에리 간도레스 합창제가 10월23일(금) 오후 8시, 명동대성당에서 있다. 국제 뿌에리 간도레스 합창연합(회장 염수정 주교)은 로마 가톨릭 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제 합창연합이다. PBC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제주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뿌에리 간도레스(대구) 등 총 7개 합창단이 참여해 다양한 노래를 선보인다.

